

KOICA 글로벌협력의사가 페루 빈민촌에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
KOICA는 글로벌협력의사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현지 의료인력 역량강화와 의료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OVERSEAS KOICA 방글라데시 빈곤퇴치를 위한 코이카의 선택과 집중
WHAT'S ODA 개도국엔 꼭 필요한 초소형 검안기
KOICA STORY 코이카, 더 나은 물의 시대를 연다

지구촌 가족

2017. spring
Vol. 4
World's Friend KOICA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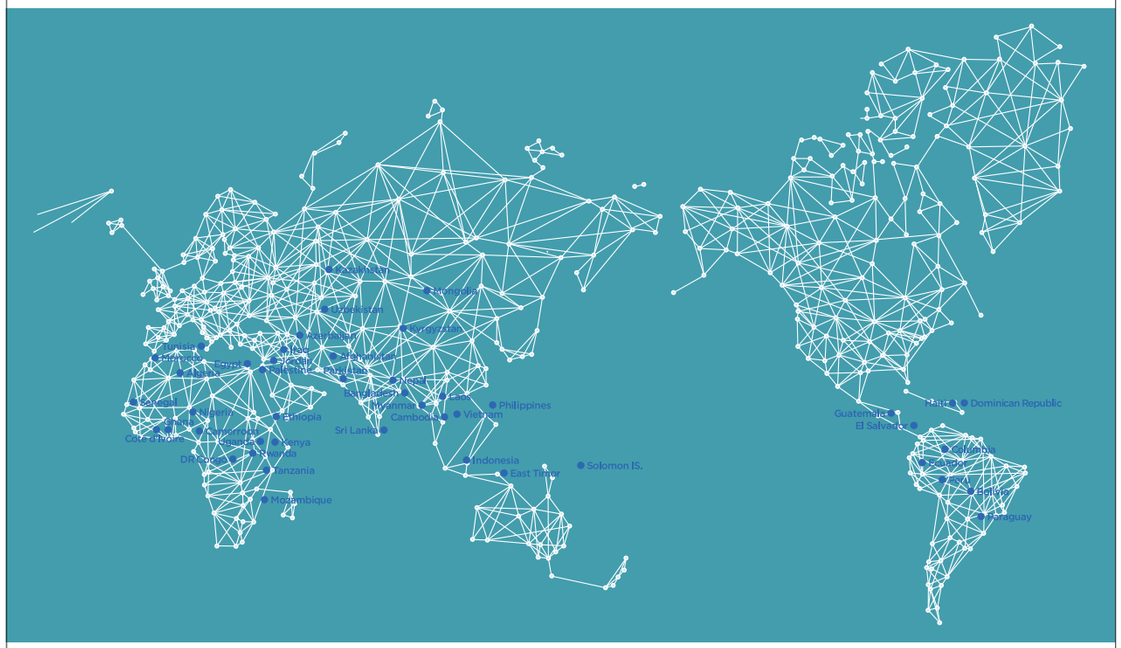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NK ODA, WITH KOICA
WWW.KOICA.GO.KR

ABOUT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1991년 4월 설립된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및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OICA는 그간의 개발협력 경험과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한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여 지구촌 공동 과제를 극복해 가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인과 국격을 제고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해외 진출 기회를 늘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자신들의 기술을 지구촌 이웃과 공유하면서 그 역량을 개발하고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사 회의 경제성장 모범사례이자 한국의 소중한 자산인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변형·확산 시키고자 합니다. 선진공여국, 신흥공여국, 국제기구들과의 협업을 통한 ODA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수원국, 공적기관, 민간투자와의 포용적파트너십을 통해 중·하위 소득계층과 함께 성장하는 ODA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KOICA는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지구촌 곳곳에 행복을 심어줄 수 있도록 KOICA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NTENTS

2017. Spring / Vol. 4

OVERSEAS KOICA
세계 속 코이카

04
방글라데시 빈곤퇴치를 위한
코이카의 선택과 집중

06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
450여 부족 문화 한 그릇에 담는다

08
페루에서 빛나는
WFK 단원들의 활약

12
'아람의 봄' 부른 튀니지에
민주주의 정착시키기



WHAT'S ODA
ODA 알아보기

14
㈜제윤 스마트 복약 관리와
코이카의 콜라보

16
개도국엔 꼭 필요한
초소형 검안기

18
캄보디아에 희망 준
나무리프의 역발상

20
SDGs 10번째 과제
'소외계층 위한 불평등 완화 전략'

22
SDGs 11번째 과제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도시와 거주지 조성'

24
SDGs 12번째 과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KOICA STORY
코이카 이야기

26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첫 졸업생 배출

28
코이카, 더 나은 물의 시대를 연다

World's Friend
KOICA

발행인 김인식 **등록일자** 1994년 12월 5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17-01-007
발행일 2017년 4월 19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462-833)
전화 031-740-0114 **팩스** 031-740-0655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코이카 홍보실 **제작**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조광프린팅

코이카 뉴스레터 〈지구촌가족〉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이카)은 대한민국의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정부출연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01

방글라데시 빈곤퇴치를 위한 코이카의 선택과 집중
간호 분야와 ICT에 '코리안 드림' 심는다


02

방글라데시는 과도한 인구밀도, 부패, 부존자원 빈약 등으로 인해 32%의 인구가 빈곤선(하루 1.25달러)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개발협력의 최전선이다. 코이카 방글라데시사무소는 제2기 국별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교육 · 교통 · 보건 · ICT(정보통신기술)를 중점 추진 분야로 삼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수행 중인 보건 분야 '방글라데시 간호전문대학원 설립사업'과 ICT 분야 '방글라데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소개한다.

방글라데시 랜드마크 사업, 최대 규모의 간호전문대 설립

방글라데시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비율이 2:1로 의사가 월등히 많다. 의사 1인당 인구는 1860명인 데 비하여 간호사 1인당 인구는 5782명으로 그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 세계 인구밀도 1위인 방글라데시의 상황에 맞는 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코이카 방글라데시사무소는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 교육을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간호전문대학원 설립사업(2012~2018 · 1350만달러)'을 실시하고 있다. 주재국 최초의 간호대 석사과정이자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사업이다.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의 하모니… 1월 첫 학기 개설

이 사업은 2015년 5월,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가 정상회담 중 간호인력양성 사업을 우리정부에 요청하여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정규 석사학위 과정 설립, 대학원 건물 신축, 의료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연구 및 실무의 융합 등이 이 사업의 골자다. 대학원 운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초기부터 간호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수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재국 현지 교사 중 우수 인력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왔다. 마침내 올 1월부터 약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학기가 개설됐다. 초기부터 간호교육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방법 및 연구능력과 함께 전문 분야의 지식을 함양하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간호 인력 양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방글라데시의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해본다.

전자정부 1위와 148위의 만남… 꿈은 이루어진다

방글라데시는 '디지털 방글라데시 2021' 비전과 '국가 ICT 정책 2009'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수립 ▲인적자원 개발 ▲사회자본 확대 ▲민관 파트너십 강화 ▲중소득국으로의 진입 도모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UN 전자정부 지수 1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ICT 분야 성공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국내외 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데 높은 의욕을 보이고 있어, 이 사업이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 행정제도의 기틀 마련해 전자정부 교두보 구축

방글라데시는 다양한 공여기관과 전자정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실정이다. 5개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그중 최우선 순위 사업 1개를 선정하여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개혁, 부패 방지, 참여행정 등을 기반으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핵심요소다. 코이카 방글라데시사무소는 전자정부 시스템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전자정부 플랫폼 역할을 통해 ICT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도 제고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03


04

01
건축이 진행 중인 간호전문대학원 전경.
02
나르싱디 지역주민.
03
조현규 코이카 방글라데시사무소 소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에나멀 카비르(Enamul Kabir) 방글라데시 정보통신기술부 국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코이카 및 사업수행자(한국 IT컨설팅, KAIST), 수원기관(ICT Division) 관계자들.
04
지난해 11월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워크숍.

글 배진현(방글라데시사무소 부소장)
사진 방글라데시사무소


01

코이카의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
450여 부족 문화를 한 그릇에 담는다

450여 부족과 200여개의 언어가 공존하는 DR콩고에 있어 '국가 통합'은 모든 발전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DR콩고에 박물관을 짓기로 했다. 450여 부족의 가치관과 전통문화를 존중하면서 이들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것. 그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본다.


02

DR콩고는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하며 한반도의 11배, 대한민국의 23배나 되는 방대한 영토를 갖고 있다. 이런 지리적 특성과 영토의 방대함 덕에 DR콩고라는 1개 국가 내에 450여 부족, 200여개의 언어가 공존한다. DR콩고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450여 부족의 가치관과 전통문화를 존중하면서 국가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 또한 이를 위한 국가 정체성도 중요한 과제다.

2000만달러 들여 2018년 완공 목표

한국과 콩고, 두 국가 정상 간 약속으로 형성된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은 유물 보존 및 보호를 통한 다양성 유지 및 존중의 가치 전파, 문화와 역사의 교육의 장 제공을 통한 국민의식 함양 및 국가통합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다섯가지 분야에 대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1 | 문화부 및 국립박물관 인력의 박물관 경영·감독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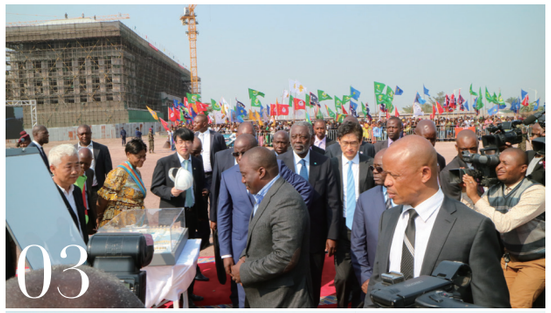
2 | 유물 발굴, 조사, 연구 역량 강화

3 | 유물 복원 및 보존, 구술 유물 디지털화 및 유물 데이터베이스(Database) 생성 지원

4 | 전시기획 및 설계, 교육 역량 강화

5 | 연면적 6000m² 국립박물관 신축, 설비 및 기자재 마련

현재 박물관 운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마스터플랜 수립 최종 단계이며, 건축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18년 말 완공 예정이다. 신축 국립박물관 개관 시 전시할 유물 목록 1000여점을 선정했으며 전시 설계 중이다. 2015년 DR콩고 문화부 및 국립박물관 고위급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립박물관 운영 및 감독 경험을 공유했으며 올 7~8월에 학예연구, 보존, 교육, 디지털화 등 세부 분야 실무자를 한국으로 초청할 예정이다.


03



04

01
DR콩고 국립박물관 조감도.
02
므와쉬-아-음보이 우트 왕.
03, 04
DR콩고 국립박물관 기공식 행사 현장.

현지인들 정서 고려한 문화ODA의 대표적 사례

한민족에게는 한민족만이 이해하고 공유하는 얼이 있듯, DR콩고의 450여 부족의 전통도 타인이 평가하고 예단할 수 없다. 그것이 문화ODA의 어려운 점이자 간과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코이카는 타인의 시각이 아닌 DR콩고의 시각으로, 타인이 아닌 DR콩고인이 만든 국립박물관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콩고 국립박물관 연구소(IMNC·Institut des Musées Nationaux du Congo)가 주인의식을 갖고 마스터플랜에 대한 검토와 상세 이행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새 수장고로 이관할 유물 선정과 개관 전시 대상 유물 선정도 DR콩고 측에 일임하고 있으며 역량강화(기술 훈련)도 DR콩고 측 수요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글 채정원(DR콩고사무소 부소장)

'기적의 손'으로, '나이팅게일'로
페루에서 빛나는
WFK 단원들의 활약



현지 언론을 통해 '기적의 손'이라고 소개된 물리치료사, 리마의 한 보건국에서 현지인들의 결핵 예방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간호사. 모두 페루에서 활약 중인 WFK 단원들의 이야기다. 적극적으로 현지인들의 필요를 찾아 본인의 재능을 나누려 노력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01
지난 2016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태권도 국제 품새 대회 참가자를 치료하고 있는 이동현 단원.
02
지난 2016년 뜨라산디노 TACNA 여자 농구팀과의 기념촬영.

INTERVIEW

"협력하고 이뤄내는 새로운 경험에 푹 빠졌어요"

WFK 102기 이동현 물리치료사

코이카를 통해 페루로 파견돼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는 이동현 단원. 현지 언론을 통해 '기적의 손'이라고 소개되며 그의 행보가 빛을 발하고 있다. 임기 6개월 만이 남은 이 시점, 그가 걸어온 물리치료사로서의 길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들어본다.

Q_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102기로 페루에서 활동 중인 이동현 단원입니다. 타크나(Tacna) 지역 페루체육회(IPD)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고 다른 물리치료 단원들과는 달리 병원이 아닌 체육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한국 태릉선수촌 같은 곳이며, 이곳에 상주하면서 부상당한 모든 IPD 소속 운동선수들(총 11종목)을 치료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Q_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 제가 근무하는 타크나 지역에서 열린 국제유도대회를 꼽고 싶습니다. 이 대회에서 저는 정재희 단원(간호/리마)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치료하고 현지 병원 후송까지 책임지는 등 의무지원을 했습니다. 유도대회 중 한 선수가 심정지 직전까지 간 상황도 발생했었는데 신속한 대처로 위급 상황을 모면하고 현지 구급 대원들과 함께 의료기관까지 후송했습니다. 또한 의무지원과는 별개로 이 대회에서 제가 직접 유도선수로 참가했었는데, 운 좋게 3등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더욱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Q_페루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대표 선수들도 치료한다고 들었습니다. 계기가 무엇인가요? 또한 그런 활동을 하며 특별히 느낀 것이 있다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대표팀들과 대회가 있을 때 각 지역에서 전담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함께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 제가 타 국가의 선수들까지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곳 남미에서는 '팀닥터'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선수들이 부상 후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 동안 참고 있다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상 예방보단 부상 후 치료를 지원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초반에는 선수들이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기관을 상대로 팀닥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은, 기관에서도 팀닥터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죠."

Q_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스포츠 팀닥터로서의 물리치료사, 두 가지 모두 경험했는데 어떤 쪽이 더 본인에게 맞나요?

"아무래도 상하 관계 또는 피라미드 조직인 병원보다는 스포츠팀에서 감독, 선수들과 소통을 하며 업무를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팀도 상하 관계가 있지만 병원보다는 조금은 부드러운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생각 공유와 의사 소통에 있어 경직된 보고 체계를 가진 병원보다는 스포츠팀에 있을 때 더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팀닥터로 일하는 것이 제게 더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_봉사단원 활동이 본인의 진로 및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너무 경쟁만 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해오다가 우연히 코이카를 알게 되어 페루로 오게 되었습니다. 페루에서 봉사단원으로 생활하면서 다같이 협력하여 이뤄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들은 제게 여유를 주었고, 저의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봉사단원으로서의 생활이 끝나 다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여기서 느꼈던 여유를 기억한다면 그 어떤 일도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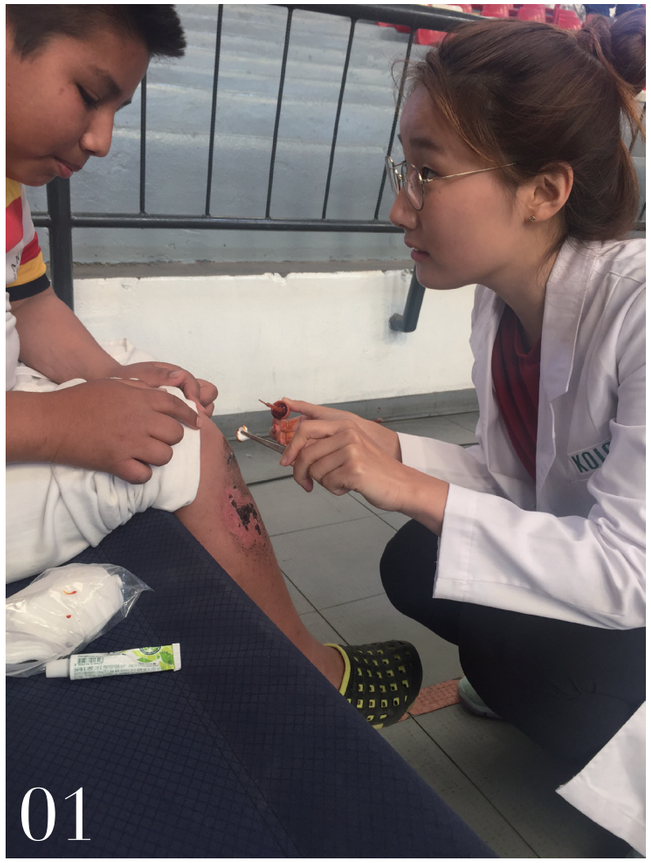
글 이현아 · 김다빈(페루사무소 영프로페셔널)

INTERVIEW

“봉사단에서 배운 것들은 내 미래 위한 소중한 자산”

WFK 102기 정재희 간호사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개인의 수준에서 이루는 것이 목표라는 정재희 단원, 그녀는 지금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마의 한 보건국에서 현지인들의 결핵 예방을 위해 일하고 있다.



01

01
스포츠 현장 의무지원 활동 중인 정재희 단원.
02
따끄나 지역 협력 활동 중 결핵 교육.
03
안내문 발간.

Q_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WFK 102기 간호단원으로 페루에 파견된 정재희입니다. 저는 페루의 수도인 리마의 북부에 위치한 투팍 아마루(Tupac Amaru) 보건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결핵 예방 · 관리팀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은 하위 보건소 내 결핵 부서의 진료지원을 담당하며 직원 교육, 행사 주관, 환자 관리 및 자문에 관여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검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_한국에서 간호사로서 근무했던 경험을 페루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반대로 페루 기관에서 업무상 어떠한 점을 배우고 있나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종합병원 내 신경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비록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가 제 경력과는 무관한 질환을 다루고는 있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며 체득한 환경 관리 및 퀄리티 관리에 대한 경험을 살려 현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전에 근무한 병원에서 해왔던 뉴스레터 공지 방식을 차용하여 하위 기관 보건소에 포스터 형식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간은 오류가 있을 때마다 담당직원이 전화로 통보해야 했다면 지금은 이 안내문을 통해 기관과 직원 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지 파견 초기에 저는 새로운 분과에 배정받았다고 여기며 현지의 진료 지침을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루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매우 다학제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하더라도 다양한 직종의 이해관계자가 만나 토론을 합니다. 의료인 중심의 한국 의료 현장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Q_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언제인가요?

“저희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환자들의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발휘할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임지 파견 첫 반기가 지날 때쯤 검사 결과를 추적하다가 검체 오염이 많아 이를 관리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검체 수거에 동행하며 각 실험실을 방문해 검체 전용 냉장고를 점검한 결과 관리가 소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온도 기록은커녕 온도계와 냉장고마저 없이 운영되는 검사실도 있었고, 검체 보관 냉장고에 음식물이 보관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후 활동 지원 물품으로 전자온도계를 구매해 설치했고 검체 냉장고 활용 매뉴얼을 배포하여 교육했습니다. 이후 냉장고 활용 시 상급 관리자에게 보고되어 자발적인 냉장고 청소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환경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불러일으켰다고 느껴 정말 뿌듯했습니다.”


RED DE SALUD TUPAC AMARU Y KOICA — 21 DE ABRIL DEL 2016

Boletín del LAB 01

¿Como solicitar la prueba correctamente?

48h

Solicita Genotype dentro de 48horas

Tiempo para la recolección de la muestra

La muestra para Genotype no debe pasar más de 48horas hasta su examen en INS.

¿Sabías que un aproximado de 20 casos resultaron inadecuados en enero? Si desea obtener un resultado correcto, mantenga buena calidad y cantidad. Las solicitudes deberán ser escritas con letra legible y todos los datos del paciente.

Cualquier consulta llamar a 988-532-406(Ana)

Editoria Diana Jaehee Jung de KOICA

CULTIVO 03

GENOTYPE DE LUNES A JUEVES

Debido a INS no se trabaja durante los fines de semana, la entrega es hasta los jueves

KOICA

La muestra con sangre pasará a cultivo

Hidrolizado tampoco se permite Genotype

El volumen al menos de 3~5ml

La calidad de la muestra debe ser mucoide

No escriba el nombre en la tapa

Rotular el nombre en el cuerpo de frasco y sellar bien la tapa



02

Q_앞으로 5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짧은 시간이지만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단원 개인의 수준에서 이루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떠나도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원 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은 구상 단계에 있지만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에도 관여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소박하게 이루고 싶은 것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능숙하게 젓가락질을 했으면 합니다. 파견 중반 이후 간단하게 한국 음식을 소개할 겸 일부러 점심 식사 시간에 맞춰 근무 시간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식문화에 대한 일회적인 경험을 넘어 이를 몸소 익히게 되면 훗날 젓가락질을 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Q_봉사활동이 진로 및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흔한 대답이기는 하지만 해외 봉사활동은 지난 제 삶이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만한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환산된 사람의 값어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에 맞춰가는 삶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그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조합하면 더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7.SPRING

‘아랍의 봄’ 부른 튀니지에 민주주의 정착시키기
코이카, UNDP와 손잡고 그들 속으로



2011년 튀니지 혁명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이른바 ‘아랍의 봄’을 불러일으켰다. 혁명 후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튀니지의 열망은 뜨겁다. 이곳에서 코이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튀니지의 민주주의와 사회 안정을 위한 코이카의 활약을 전한다.



반부패 역량 강화부터 시민사회 지원까지

코이카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파트너십은 튀니지의 정치를 배경으로 한다. 튀니지는 2011년 반부패청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부패 척결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코이카와 UNDP는 반부패청 및 정부를 중심으로 튀니지의 공공 분야 개혁을 지원했다.

2014년 10월 건의된 사업안이 2015년 타당성조사를 거쳐, 지난해 5월 코이카와 UNDP 간 MOU체결을 통해 시작되었다.

01_반부패 분야 역량 제고 및 법제도 수립 지원

코이카는 UNDP의 튀니지 민주주의 및 안정화 사업 중에서 거버넌스 및 반부패 분야 지원을 맡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반부패 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지원하고, 연구센터와 지방사무소를 지원한다. 더불어 반부패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타 국가들과의 정부 책임성 및 투명성 관련 사례 공유를 지원한다.

02_경찰 등 공공분야 부문 부패위험 감소와 시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원

코이카는 튀니지 경찰 및 보건, 지방정부, 관세 등 공공분야에서의 반부패 활동도 함께 지원한다. 코이카와 UNDP는 내무부 산하 경찰 조직에 대한 행동규범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3개 시범 병원, 제르바 주정부, 관세청을 대상으로 공공분야에 대한 반부패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한다.

03_시민사회 참여 지원

지역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과 재정지원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38개 시민단체와 UNDP 간 협약을 체결해 시민단체를 재정 지원하고 있다.

01
튀니지 혁명은 높은 실업률과 정부의 부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생존권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시작되었다.
02
2016년 12월, 38개 시민단체와 UNDP 간의 지원협약 체결식 모습. 이날 참석한 UNDP와 코이카, 튀니지 반부패청의 주요 관계자들은 튀니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UNDP 민주주의 및 안정화 지원사업의 성과 목표(2019년)

반부패 및 투명성 지원

- 반부패청 부패 취약부문 과제 및 대안제시 보고서 작성 및 공개
- 반부패청 연구센터 및 지방사무소 설립
- 좋은거버넌스반부패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 내무부 산하 경찰의 행동강령 이행
- 사업지원지역(메데닌과 시리아나) 경찰의 부패신고 체계 도입
- 사업지원지역(메데닌과 시리아나) 주정부의 부패신고 체계 도입
- 평판평가인센티브계획 시행을 위한 기준선 조사 및 확산

시민사회 참여 제고

- 시민과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개최한 주정부 또는 정부기관 증대
-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적 체계의 증대

튀니지의 바른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되는 코이카의 활동

튀니지에서의 또 다른 공공행정 분야 사업으로 ‘시민참여 촉진 및 부패방지 시스템(국민신문고)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튀니지 정부는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반부패 관련 역량을 강화함과 함께 국민신문고 사업으로 시민사회 참여율을 제고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UNDP와의 프로젝트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기구가 튀니지에서 이미 축적한 세부경험을 공유하여 경험과 역량을 동시에 쌓을 수 있었다. 2011년의 혁명으로 힘들지만 멋진 출발을 한 튀니지에 앞으로 민주주의가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원한다.

글 이재찬(튀니지사무소 영프로페셔널)

||| KOICA의 CTS 사업, 스마트 복약 서비스로 결핵을 퇴치하다



㈜제윤 스마트 복약 관리와 코이카의 콜라보

결핵 사망률 70% 모로코에 한줄기 빛

아프리카 최북단, 모로코에서는 결핵 사망률이 70%에 이른다. 심각한 빈부격차와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제대로 된 관리와 치료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스마트 복약 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윤과 손을 잡고 모로코의 결핵 퇴치를 위한 CTS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의 상황과 코이카 CTS사업의 면면을 전한다.

결핵은 가장 많은 죽음을 가져온 감염성 질환으로 현재와 같은 세계화 시대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퇴치할 수 없으며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질환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적·경제적 여건이나 환경이 우수한 나라에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결핵의 확산을 차단하고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대로 된 관리나 치료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환자들 대부분 소외계층으로 완치율 낮아

스페인에서 지브롤터해협을 건너면 만날 수 있는 아프리카 최북단에 아름다운 나라 모로코가 있다. 이 나라는 슬프게도 결핵 사망률이 70% 이상일 정도로 결핵이 심각하며 빈부격차가 심하고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 결핵은 6개월 정도만 약을 잘 먹으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다. 하지만 이곳의 결핵 환자 대부분은 가난하고 소외받은 계층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약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결핵약의 부작용(속쓰림 등) 등으로 복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결핵 완치율이 낮았다.

01 카사블랑카 보건국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스마트 복약 관리 서비스 설명회 후 사진 촬영을 하였다. 위에서 두 번째 줄의 왼쪽 두 번째가 Dr. 물키 카사블랑카 보건국장, 위에서 두 번째 줄의 왼쪽에서 첫 번째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센터 최은창 의료IT연구실장, 위에서 세 번째 줄 왼쪽 두 번째는 윤효경 제윤메디컬 대표이사.

02 주모로코 한국대사관에서 대사를 면담한 ㈜제윤 관계자들. 왼쪽부터 나재욱 연구소장, 박세업 글로벌케어 모로코 지부장, 윤태원 대표이사, 김주현 본부장.

약 제때 먹는 스마트 관리로 복용률 98%까지 올려

결핵약의 투약순응률(실제 복약된 약제수/처방된 약제수)을 극도로 끌어올려 결핵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제윤의 스마트 복약 서비스를 모로코에 보급하게 됐다. 스마트 복약 서비스는 결핵약을 보관하고 지정된 시간에 복약을 독려하고 환자의 복약 정보(미복용·오복용·과복용) 등을 수집하는 스마트 약상자와, 스마트 약상자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복약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할 수 있는 스마트 복약 관리 서비스로 구성된다. 즉 현지 3G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약상자는 복약 스케줄에 따라 알람이 울리고 환자가 약을 꺼내 먹으면 실시간으로 스마트 복약 관리 서비스를 통해 복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미복용 등이 발생하면 의료진이 복용을 직접 권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완전복용률이 75%에서 98%까지 높아져 현지에서도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는 라빗–살레, 카사블랑카, 테마라, 스키라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구 750만의 모로코 최대 도시 카사블랑카에 이 서비스가 보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KOICA CTS, 그리고 미래

제윤은 스마트 복약 관리 서비스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수많은 해외 진출을 시도했으나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다가 CTS사업을 통해 그 물꼬를 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코이카 사업을 통해 기술 전담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센터)과 현지 사업 전담기관(NGO 글로벌케어 모로코 지부) 등과 새로이 손잡아 'Well-made Service'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임직원 모두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글 윤태원(㈜제윤 대표이사)
만화 홍세훈 작가

||| KOICA의 CTS 사업, 개도국의 '눈 건강'에 주목하다



개도국엔 꼭 필요한 초소형 검안기 오비츠가 세상을 밝히다

몸이 10할이면 눈이 9할이라 할 만큼 중요시되는 눈 건강. 그러나 검진기기와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그야말로 눈 질끈 감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90%가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위한 코이카 CTS 사업에 참여해 보다 손쉬운 검안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파트너 ㈜오비츠의 활약을 전한다.

간단한 검안도 하지 못해
시력을 잃는 사람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3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심각한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인구 중 90%는 저소득계층, 특히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시각질환의 80%는 간단한 검안과 적절한 진료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전문 인력, 기술, 인프라의 부재로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각질환이 방치,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검안서비스가 개도국에서 유통되지 않는 이유는 기존 검안기기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기존의 기기는 가격이 비싸고 부피가 크며, 훈련받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쉽게 사용할 수 없다. 재정과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존 검안기기의 보급을 통한 안보건 서비스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비츠는 바로 이 문제에 주목하고 쉽게 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검안기 개발을 통해 개도국 안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확대해 왔다.

값싸고 배터리로도 작동되는
획기적인 기술력

먼저 초소형 광학설계를 통해 한 손에 들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검안기기를 만들었다. 오비츠가 개발한 기기는 부피가 작고 가벼워 병원에서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서든지 들고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다. 배터리로 구동되기 때문에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정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또한 장점이다. 혁신적 설계기술 및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기존 기기 가격의 10분의 1 이하로 줄인 것은 오비츠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자 개도국 실정에 맞는 혁신기술이라 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원격 방문 진료 또한 가능하다. 훈련을 받은 일반인 혹은 간호사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시각질환 정보를 측정하고 저장하면 안과 전문의가 클라우드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원격으로 질병을 판단하고 환자를 병원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환자는 직접 멀리 떨어진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도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는 안과 전문의의 수가 극히 제한적인 개도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선의 방법이다.

코이카 CTS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모델로

새로운 기기의 정확성 및 유효성 판단을 위한 임상 및 성능시험을 한국의 세브란스병원과 국립의료원, 미국 시과학연구소(Flaum Eye Institute)와 베트남에서 수차례 진행하였다. 기기의 측정치와 의사가 직접 측정한 실제값 사이에 98% 이상의 일치를 통해 기기의 정확성을 증명했다. 특히 베트남 광찌(Quang-Tri)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력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시력을 정확하게 측정했으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아이들 눈에 꼭 맞는 안경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오비츠의 기기가 개발도상국 안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오비츠는 코이카 CTS프로그램을 통해 목표하였던 휴대용 검안기 개선 및 최종 시제품 제작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의 현지 필드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실제 제품의 개선점을 찾아내고 개도국 실정에 맞는 기술을 실현했다.
무엇보다 코이카 사업을 통해 개도국 안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NGO 단체 및 관계기관들과 휴대용 검안기기 활용을 통한 안보건 접근성 증대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코이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다. 오비츠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위와 같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안보건 서비스 증대의 명확한 목표를 향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01
친구가 검안을 받자 신기한 듯 몰려들어 함께 보는 아이들.

02
베트남 초등학교 방문 임상테스트에서 직접 기기를 활용하여 검안하고 있는 현지 스태프.

글 이성민(㈜오비츠 매니저)
만화 홍세훈 작가

||| KOICA의 CTS 사업, 친환경적인 일회용기를 만들다



"친환경 일회용기, 모두를 위해 함부로 버려주세요!"

캄보디아에 희망 준 나무리프의 역발상

버려졌던 낙엽이 낙엽접시가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친환경 일회용기'로 코이카 CTS 1기로 참여해
캄보디아에서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고 있는
㈜나무리프의 도전과 활약을 전한다.

생분해성 일회용기 만들어 보급

일회용기를 함부로 쓰고 버려도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쓰고 많이 버릴수록 캄보디아 시골 주민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이러한 일이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실현되고 있다. 코이카 CTS 1기 파트너인 ㈜나무리프가 캄보디아 캄퐁참주(Kampong Cham Province)에서 생분해성 일회용기를 제작하고 있는 것. 버려졌던 낙엽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환경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제조업에 도전한 것이다.낙엽이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자.


01


02

01
캄보디아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낙엽접시.
02
캄보디아 직원들과 함께.

소외지역 일자리 창출

나무리프는 별도 인프라 투자 없이 개발도상국 소외지역에서 운용이 가능한 낙엽접시 성형기계를 직접 디자인했다. 야자수 잎과 가정용 전기만 있다면 캄보디아 어디서든 접시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 일회용기 사용 문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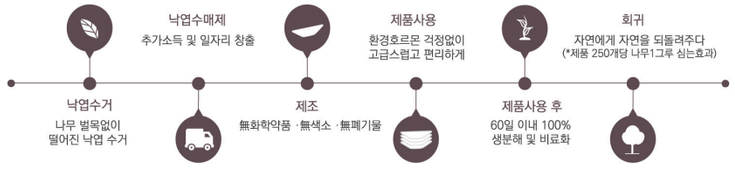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플라스틱 일회용기에 대한 정부의 환경규제가 미흡하고 스티로폼 그릇 사용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단체들이 교육이나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대안이 없어 담당자들의 고민이 많았다.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는 캄보디아 산업구조의 특성상 가격경쟁력이 없는 친환경 제품이 유통되기 어려웠기 때문. 그러나 낙엽접시는 친환경적인 것은 물론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스티로폼보다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캄보디아 사업지 환경보호

기존의 일회용기 제조사업은 공해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낙엽접시는 오직 낙엽과 깨끗한 물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친환경사업이다. 나무를 벌목하거나 생산지에 어떠한 폐기물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용기를 만들면서도 캄보디아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사용된 접시는 흙 속에서 60일 후에 생분해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코이카의 CTS 파트너로 선정

이렇게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2015년 나무리프는 코이카 CTS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다. 2016년 CTS 파트너로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했고,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원재료 수급, 기계 보급 그리고 판로까지 CTS 파트너십의 도움으로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친환경 일회용기'라는 나무리프의 역발상에 힘을 실어준 코이카에 감사를 전한다. 이에 힘입어 나무리프는 올 한 해 구축된 사업지를 기반으로 생산량, 판매량을 모두 늘려서 더 많은 소셜 임팩트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 김승훈(㈜나무리프 팀장)
만화 홍세훈 작가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7.SPRING

SDGs 10

SDGs 10번째 과제
'소외계층 위한 불평등 완화 전략'
코이카, 베트남·네팔에서 불평등과의 싸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0번째 과제는 다름아닌 불평등과의 싸움이다. 경제·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반영하며, 이에 대한 국내외적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이행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 지구촌 모두가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기 위한 입체적 계획들을 살펴본다.



SDGs 10 '소외계층 위한 불평등 완화 전략'에 관한 이야기는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7년 1월호 'ODA 알아보기'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701/content3.php?code=201701_010309

유엔, 지구촌 빈곤 해소 겨냥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

2015년에 시작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소득을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불평등에 주목하고 있다. 소득뿐만 아니라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적 혹은 다른 지위의 불평등 감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SDGs의 10번째 목표는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이다.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소득 불평등 기준을 하위소득수준 인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불평등을 경제·사회·정치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외적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이행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이행성과를 가시적으로 관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이카, 베트남 녹색성장·네팔 의료보험 도입 지원

코이카도 SDGs 10번째 과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이카는 베트남 국가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을 2013~2015년 3년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마스터플랜에 기반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개발을 연이어 지원했다.
2015년에는 베트남 총리와 기획투자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베트남이 녹색성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리더십을 제고 및 발휘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팔에서는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네팔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관련 부처의 의료보험 정책 의사결정 역량 제고에 기여했다.



금융 분야에서도 불평등 완화 노력

다른 원조공여기관도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UN SDGs 10번째 목표의 금융건전성지수 및 송금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유용하고 적절한 비용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과 사업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포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20억명이 공식적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성인 50% 이상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문제에 주목했다. 세계은행은 2015년 '보편적 금융 접근성'이라는 이니셔티브를 발족하면서 2020년까지 성인 10억명에게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니셔티브 아래 세계은행은 유통결제시스템·정부지급시스템 현대화, 국가지급시스템 구축, 개인금융 서비스 다양화, 금융포용을 위한 기술 동원,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포용 데이터 등 다양한 세부 분야에서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은 아프리카에서 금융건전성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개발전담기관 DFID는 금융포용 혁신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에 금융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술주도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저개발국 대상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나 소득,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적 혹은 다른 지위에 따른 불평등은 존재한다. SDGs가 이러한 보편적 측면을 저개발국의 상황에도 대입하여 접근한 것은 해당 국가와 사회가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이다. 원조기관들도 SDGs 10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여 유의미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임한나(혁신파트너사업팀)

SDGs 11

SDGs 11번째 과제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도시와 거주지 조성'
살기 좋고 포근한 도시 지구촌의 꿈이자 숙제

SDGs의 11번째 목표는 '포용적이고(Inclusive), 안전하며(Safe) 복원력 있고(Resilience),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와 거주지 조성'이다. 과연 우리의 도시와 거주지에 왜 이렇게 복잡한 잣대를 제시하는 걸까? 그 의미와 실현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급속한 도시화로 전 세계 40억 명이 도시에 거주

세계는 20세기 중반 이후 급속하고 지속적인 도시화로 1950년 29.6%였던 도시화율이 2008년 50%, 2015년 54%를 상회하였고, 2050년에는 7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인구로 환산하면 2015년 약 39억6000명에서 2050년 약 60억 명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시화 과정은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소득기회 창출을 통해 빈곤이 감소하고, 도시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 성장과 개발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도시화는 도시의 부양능력을 벗어난 인구집중과 이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비공식 정착지의 확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유발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또한 비정상적인 도시화를 겪는 도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와 강도가 더욱 확대되는 취약성을 보인다. 제프리 삭스는 그의 저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2015)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계획하고 설계한 도시는 경제적 기회 극대화, 삶의 질 향상, 공중보건 촉진, 자연환경에 대한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 모두를 저탄소 경제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도시를 단순한 정주공간이 아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적 현안의 해결책이자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고,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할 때다.

7개의 실행목표와 3개의 이행수단 제시

SDGs의 11번째 목표는 '포용적이고(Inclusive), 안전하며(Safe), 복원력 있고(Resilience),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와 거주지 조성'으로 정립되었는데 7개의 실행목표(Action Targets, 11.1~11.7)와 3개의 이행수단(MOI·Means of Implementation, 11.a~11.c)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를 개별적인 세부 분야(Sector) 또는 이슈로 접근했던 기존 MDGs의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의 시스템 개선 및 물리적 인프라 지원 목표로서 11.1(주거·도시불량주거지(Slum)·기초서비스), 11.2(교통 인프라), 11.3(통합적 도시계획)이 제시되었고, 주거 및 교통, 기반 시설 등의 계획과 지원은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시에 사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2030년까지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도시 개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로서 11.4(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11.5(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11.6(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11.7(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도시 내 취약계층 보호)이 제시됐다.
3개의 이행수단은 11.a(광역적 관점에서의 도시 지역과 도시 주변부 지역,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도시 지역 관리 방안 제시), 11.b(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과 계획 수립의 필요성), 11.c(지역 자재 활용 장려)로 구성되어 있다.

1) 김성호, 2016, '해비타트 3의 주요 비전과 역할', Urban Affair 51(599), p.27,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 한국국제협력단,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p.219,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도시개발 사업 추진 방향

코이카 도시개발 분야는 사회 인프라 구축 및 국토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협력 대상국의 자립 가능한 경제개발 및 산업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여 국토정보 체계화, 도시계획 수립, 국토개발정책 수립, 국토종합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했다. 향후에는 기반시설 수요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실행력 있는 도시개발계획을 통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충격을 미리 인지하여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및 정주지 조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유형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글 원종준(기술총괄팀 과장)

SDGs 12

SDGs 12번째 과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인류가 먹고사는 근본문제
건강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SDGs가 12번째로 지목하고 있는 목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이다.
인류 생존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맞닿아 있는 이 목표에 대한 논의와 의미를 되짚어 보고,
SDGs 12를 위한 코이카의 관련 사업과 노력에 대해 소개한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

1994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오슬로 원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해 '기본적 욕구에 부응하고 삶의 질을 높이되, 서비스와 제품의 생애주기에 걸쳐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미래세대를 해치지 않는 서비스와 관련 제품의 사용'으로 정의했다.

중요한 문제는 현재 소비되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감소(소비 수준)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덜 오염된 재화와 서비스(소비 양식)의 대체를 통해 환경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에 관한 논의는 1992년 리우 회의 어젠다 21에서 소비양식의 변화를 강조하며 시작되었다. 이어 오슬로 원탁회의를 거쳐 JPOI(the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 2002)에서는 SCP가 지속가능발전의 필요 조건임을 인지하고, '생태계 보유 역량 내에서 사회 및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SCP 가속화를 지원하는 지역 및 국가단위 10개년 프로그램(10YFP)'의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마라케시 프로세스(Marrakech Process · 2003)에서는 글로벌 수준에서 SCP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유엔경제사회국(UNDESA)과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로 논의되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2012년 'Future We Want'에서는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년에 첫 번째 글로벌 회의가 개최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SDGs 12

지난해 3월 UN 통계위원회(UNSC)에서는 2030의제의 달성을 위한 17대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글로벌 지표 체계를 수립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이카, 농업 가치사슬 확대 위한 국제적 노력

SDG의 필요성과 목표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이를 입증해낼 수 있는 객관적 지표와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SCP(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는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의 전 세계적인 1인당 식량 낭비를 반감하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생산 · 공급 과정의 식량 손실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매년 생산되는 식품의 3분의 1가량이 소비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다. 식품손실은 식품의 전체 공급과정(1차 생산에서 가정단위 소비까지)에서 발생한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식품 공급 채널의 초 · 중기에서 많이 발생한다. 식품 손실로 인한 공급의 부족으로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영양의 균형적인 공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농업 가치사슬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농산물의 가치사슬을 확대하기 위한 식품 공급 채널 단계에 따른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지현. 2016. SDGs 지표 확정과 의의. KOICA 개발과 이슈 제25호(2016.12월호).
한국국제협력단.웹사이트 – SDG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topics/sustainableconsumptionandproduction, FAO http://www.fao.org/save-food/resources/en/

글 이효정(경제개발실 과장)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첫 졸업생 배출
캄보디아에 새로운 성장동력 'On'

새해를 맞으며 캄보디아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의 첫 졸업식이 열린 것. 농업에 기반을 둔 캄보디아가 기존의 한계를 딛고 더 큰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캄보디아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의 활약을 전한다.



47명 과정 마쳐…
80%가 취업·인턴 성공

지난해 12월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약 30㎞ 떨어진 품 프레이 포펠 지역에서 특별한 졸업식이 진행됐다. 졸업식이 열린 곳은 중·고교, 대학교도 아닌 바로 자동차 정비기술학교인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이날 1년제 과정을 수료한 25명, 2년제 과정을 수료한 22명 총 47명의 캄보디아 청년들이 졸업가운 대신 자동차 정비복을 갖춰 입고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의 첫 번째 졸업장을 받아들었다. 이 졸업식에는 플랜코리아 캄보디아 대표 및 임직원과 현대자동차 캄보디아 대리점 임직원, 드림센터 및 정규과정 재학생 등 6000여명이 참석해 졸업식을 축하하며 향후 자동차 전문 인력으로서 무한히 성장할 이들에게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졸업생의 80% 이상이 자동차 관련 직종에 취업을 했거나 인턴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식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본사와 캄보디아 대리점에서 드림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과 학생 대상의 인턴십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림센터에서 배출한 우수 인력이 현지 자동차 정비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고용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 창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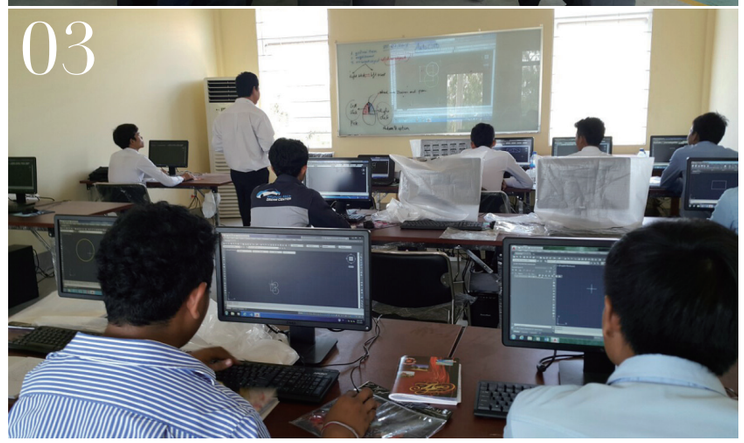
캄보디아는 최근 10년 새 상당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성장이 주로 의류와 건설, 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고 도시에 집중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전체 청소년의 약 30%가 정규 교과 과정 또는 기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저학년부터 학교 중퇴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새로운 기술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하는 고전적인 농업 기반의 사회환경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캄보디아 청소년들의 교육,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이카와 플랜코리아, 현대자동차가 손을 맞잡았다. 사회와 기업이 함께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의 CSV(Creating Shared Value) 모델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캄보디아의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건립과 운영에 대한 프로젝트가 착수됐다. 우선 캄보디아 정부 기술교육기관 PTC(Provincial Training Center)와 평가 조사를 통해,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가능한 기술을 제공하거나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했다. 이러한 인식과, 자동차 산업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자동차 정비 교육 사업의 필요성이 맞물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에 대한 윤곽이 그려졌다.

4개국에 '드림센터' 가동 중…
글로벌 지원 앞장

캄보디아의 '현대·코이카 드림센터'는 공식적으로 제3호 센터에 속한다. 코이카는 2013년 아프리카 가나에 처음으로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1호를 건립했다. 이후 2014년 인도네시아에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2호를, 2015년 캄보디아에 3호가 세워진 것.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공업전문대학에 4호 센터가 완공되었다.





01
캄보디아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의 첫 졸업식.
02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의 자동차 기술 교육 현장.
03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에서 기술 교육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청년들.

현재 세계 각국의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에서는 매년 현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수업과 정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화과정을 거치는 우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생들에게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돕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우수 인력 채용 등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의 운영을 통해 가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4개국에서 자동차 전문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적정한 기술 교육을 받고 관련 분야로 일자리를 얻어 우수한 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의 성장이 각국의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과 발전에 큰 나비효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신혜지(인턴기자)
사진 플랜한국위원회

3월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코이카, 더 나은 물의 시대를 연다

지구촌 인구 중 약 9억명이 식수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UN에서는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해 수자원 문제에 힘을 쏟고 있고, 코이카 역시 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물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지구촌이 처한 수자원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코이카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알아본다.

글 이재경(인턴기자)

물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 부른 볼리비아

지난해 11월,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에서 단수 현상이 일어났다. 이 지역 단수 현상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현저히 줄어든 강수량으로 인한 가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물 부족 문제는 라파스시 상수원이 모두 고갈되어 일어난 일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한 볼리비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라파스 전역에 부분단수를 시행했다. 하지만 부분단수의 대안으로 정해진 시간에 물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많은 볼리비아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여러 차례 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 문제가 중국 자본에 의한 무차별적인 개발로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과격한 시위대의 동양인에 대한 위해도 염려되었다.



01

UN WATER
22 MARCH
WORLD WATER DAY

01
'SIN AGUA NO HAY VIDA(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문구를 들고 시위 중인 볼리비아 시민.(출처: Notivias MVS)

이번 단수 현상으로 드러난 물 부족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라파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까지도 겪고 있다.

'세계 물의 날' 제정과 국제사회의 노력들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머지않아 고갈될지도 모르는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UN에서는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은 리우 회의(환경 및 개발에 관한 UN 회의)에서 권고한 의제 21 중 '수자원의 질과 공급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기념해오고 있다. UN 가입국들과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들은 세계적인 물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고 국제사회의 협력 도모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국제 물 정책 기구로 설립된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는 3년마다 세계 물의 날 주간에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을 개최한다. 그리고 UN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단위로 세계물개발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14년부터는 매년 발간하여 지속가능한 물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 세계 수자원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물개발보고서
(http://www.unwater.org/publications/world-water-development-report/en/)

코이카, 동남아 · 아프리카 등에서 물 문제 해결 노력

코이카도 이러한 국제 사회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남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분야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물과 식량
캄보디아에서 수자원 인프라 확충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수급 불균형과 가뭄 · 홍수 피해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개도국의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
코이카는 저수지, 관개수로, 관개댐 등 농촌 지역의 수자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캄보디아 캄퐁참주 크로치마군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했다. 크로치마군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본 사업은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50만달러의 규모로 시작되었다. 마을 내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가둘 수 있는 관개용수로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관개용수를 보급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의 영농기술을 전수하여 현지 주민들의 영농소득과 작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뿐만 아니라 정수 필터가 구비된 핸드펌프 우물 29개를 설치하고 635개의 화장실 개선을 지원하여 더 나은 식수 · 위생 환경을 조성했다.


01


02


03

2 물과 보건
세네갈 식수 개발 사업 진행 중

물 접근성의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수많은 생명이 물 부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특히 오염된 물 섭취는 많은 어린이가 질병을 앓는 원인이 되는데, 매일 5000여명의 어린이가 탈수증, 설사병과 같은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한다.
코이카는 550만달러 규모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세네갈 식수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대상지 12개 마을에 우물을 파고 15m 높이의 식수탑을 세워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했다. 이로 인해 세네갈 여성과 아동들이 몇 시간씩 걸어가 물을 긷지 않아도 되는 생활환경으로 변화했고, 지역주민의 수인성 질병 발생률도 감소했다.

3 물과 산업에너지
아제르바이잔 수자원 관리 시설 지원

코이카는 물 안보와 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는 수자원 기반 시설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608만달러의 규모로 '아제르바이잔 압셰론반도 쿠르다카니 지역 재생 수자원 개발 중심의 물 관련 복합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대상 전 지역에 총 130km 이상의 상하수도 시설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했고 누수율을 개선했다. 또한 지하수를 임의로 개발하거나 제한급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하수도 컬렉터를 지원하여 발생 하수의 효과적 처리를 통해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수질 보전을 이루어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05

01 정해진 시간에만 제공하는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라파스 시민들의 모습.
02 아제르바이잔 압쉐론반도 쿠르다카니 지역 재생 수자원 개발 중심의 물 관련 복합 사업 준공식.
03 캄보디아 캄퐁참주 농촌 종합개발사업의 현장.
04 모잠비크 수자원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초청 연수를 받고 있는 연수생들.
05 필리핀 수자원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최종결과 보고회.



04

4 물과 정책 거버넌스
수자원 관리에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도

물 분야에 취약한 거버넌스 체계는 각 국가의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와 정책 시행 그리고 물의 효율적 감시와 분배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코이카는 협력대상국 정부가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해왔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수자원통합관리시스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국에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고, 코이카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50만달러의 규모로 '필리핀 수자원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했다. 3차원 GIS와 원격 탐사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대상지의 재난 · 재해 및 수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수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본 사업을 통해 필리핀 정부는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사업 지역 내 수자원의 과학적인 배분과 이용, 규제와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했다.

5 물과 교육
수자원 관련 공무원 한국 연수 프로그램 진행

위에서 언급한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과 지원을 통한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도 진행하고 있다. 개도국의 정책입안자, 분야별 전문가 등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의 수자원 관리 개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수가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간 연수생들이 수자원 분야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8일, 모잠비크의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2주간 '모잠비크 수자원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초청 연수' 과정을 실시했다. 15명의 모잠비크 수자원 관리 분야 공무원들은 본 연수 과정을 통해 물 관련 기술 교육을 받았으며 한국의 물 관리 정책과 실제 수자원 개발 · 운영 사례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